



## [시장동향] 유럽, 동물성 식품 가격 상승에 가격 경쟁력 잃어

### -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대비 비싸져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유 및 유제품은 물론 육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식물성 대체식품과의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 뉴스전문지인 포커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슈퍼마켓의 우유 가격이 폭등하며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할인마트 체인도 우유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우유 가격이 1유로(약 1,332원) 이상으로 2021년 12월 대비 리터당 29센트(약 386원)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오트밀크나 아몬드 우유 가격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 네덜란드의 비건 식품 관련 비영리단체가 36개 제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식물성 대체육이 육류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유럽 전역에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에너지 및 운송은 물론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등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plantbasednews.org, 8월 8일자 >

## [낙농경영] 佛, 역대급 폭염 및 가뭄에 원유 공급 부족 우려

### - 알팔파, 옥수수 등 가축사료 수확량 감소로 원유 생산량 감소



유럽 전역에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역대급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는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최대 농업연합인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은 폭염과 가뭄으로 가축사료로 사용되는 알팔파와 옥수수 수확량이 부족해 수개월 안에 원유 공급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사육두수를 줄이는 등 산업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프랑스 역사상 1961년 3월 이후 가장 건조한 달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뭄에 직면함에 따라 위기 대응팀을 가동한 바 있다. < 출처 : connexionfrance.com, 8월 6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